

“이전 기업 모셔라”... 제주 정착지원금 도입

도, 기업 유치·투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 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이전 기업에 대한 직원 정착 보조금을 도입하고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때도 고용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각 지자체별로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도내 투자 유인 정책이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주직원 정착 보조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제주도는 도내 이전 기업 직원 중 제주에 주민등록을 한 뒤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정착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500만원, 3인 가구는 1500만원, 4인 가구는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도 설비투자 보조금과 임지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이같은 보조금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제외한 다른 지역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때 지원됐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강소기업들이 많다”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제한 기준을 이번엔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혜택 범위도 확대한다.

설비투자 보조금은 기존에 설비투자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이를 15%로 확대하고, 임지보조금 지원 범위는 투

자역의 25%에서 30%로 넓혔다.

이전기업 지원 조건도 완화해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10명 이상으로 낮췄다.

단 이같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 5억원 이상 제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기업에 투자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요건이 없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월 3일까지 받은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강소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원도시 제주’ 프로젝트 본격 추진

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 선정·사업 타당성 등 검토

제주의 자연을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원도시 제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북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행정시 관계부서, 정원·조경 분야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마련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공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총 1억71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6월 착수에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과업으로는 제주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전략 구체화, 공간·운영·인적 기반 중점사업계획 수립,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 선정 및 적정성 검토, 특화거점정원과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 마련, 사업 타당성·경제성 분석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원도시 조성 방향과 공간체계, 대상지별 추진 방안, 단계별 실행전략을 놓고

전문가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위원들은 제주의 오름과 초지 등 고유한 자연환경을 살린 제주만의 생태·자연주의 정원 모델을 구축하고, 개별 정원 조성을 넘어 지역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원도시의 큰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기존 도시재생·문화사업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참여 및 수용성 확보와 함께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원을 개별 녹지공간 조성에서 도민의 일상과 지역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녹색인프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임흥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정원사업으로 정원도시로 나아갈 토대를 다져왔다”며 “이번 용역으로 제주의 자연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원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내 집 짓기’ 건축아카데미 서귀포시, 8주 과정 운영

서귀포시가 시민들이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담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집 짓기’ 건축아카데미를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된다. 최근 참가자 모집 결과 13팀이 신청했고, 건축계획과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서귀포 건축문화연구회 소속 건축사가 멘토로 나서 올바른 터 잡기, 설계, 자재선택, 시공, 인테리어 등 집짓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다룬다.

참가자들은 건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건축계획에 ‘서귀포다움’을 어떻게 담아낼지 함께 고민하게 된다.

서귀포시 건축아카데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기 건축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만족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어미 찾는 직박구리 새끼 17일 제주시 삼도동 한 건물 옥상에 갓 태어난 직박구리가 어미를 부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11월까지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제주시가 11월 말까지 자기차고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211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시작, 오는 11월 말까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설치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3644개소 가운데 의무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2116개소다. 자기차고지는 의무사용기간 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시는 다른 용도 사용, 차고

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영입용 차고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의무사용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자기차고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했다.

백금탁기자

삼성여고~칼호텔 구간 756m 도로 내년 개통

서귀포시, 64억 투입
현재 전체 공정률 55%

서귀포시 삼성여고에서 서귀포칼호텔 인근 칠십리로를 잇는 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삼성여고 정문에서 칠십리로(보목동 진입로)를 연결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통학 차량

의 유턴 등으로 교통 혼잡이 빈발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다.

이 사업은 총연장 756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6000만원(보상비 43억6000만원, 공사비 2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55%로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노선은 1997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맞춰 2019년부터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됐다.

백금탁기자

[실제시공이미지]

[실제시공이미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대우원산송이부조장대]

[대우원산송이부조장대]

[대우원산송이부조장대]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